

“소통과 화합으로 투명한 행정 펼칠 것”

총지종 제18대 총리원장 인선 정사 올해 사업 발표

“새종풍 운동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투명한 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총지종 제 18대 총리원장에 선출된 인선 정사(사진)는 2월 17일 서울 통리원서 취임법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소감과 함께 올 해에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인선 총리원장은 우선 소통을 위한 첫 시작을 ‘월간 총무회의 개최’를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월초불공 다음 월요일에 전국 교구장이 임명직 원의원으로 집행부와 함께 중무 행정을 논의하고 그 시행방안을 찾은 예정이다. 또한 4월 착공해 올해말까지 완공 예정인 서울 종로 관성사에 총지종 수행법과 밀교문화를 알리는 복합문화 교화도량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선 총리원장은 “총지종 사원중 유일하게 사대문 안에 조성된 관성사는 제가 주교를 맡고 있는 사찰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종로 돈의문지구 내의 종교교용지 200여평에 건평 500여평의 사원을 신축해 수행문화도량으로 활용할 것

입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종단의 정체성 강화와 생활 불교의 면모를 보여 줄 스승들의 정복 평상복도 새로 제작할 예정이다.

인선 총리원장은 “총지종은 생활불교를 표방하지만, 그동안 정복은 생활복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정복으로 착용하는 전수님들은 원복과 교무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행생활에 맞는 정복과 평상복의 디자인을 연구해 올 10월경 새로 제정해 종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도들의 소속감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발표중 눈길을 끄는 것은 법규집의 전면 재검토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종회 산하 ‘총원종법연구회’를 운영해 40여 년이 지난 법규를 현 시대에 맞게 용어와 규정 등의 정리를 할 계획이다.

인선 총리원장은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성직자의 자격요건이다. 현행 종단 법규에는 스승 자격에 ‘서자녀’나 ‘이혼자’ 등은 스승이 될 수 없다.”며 “이 점은 훌륭한 인재수급에 걸림돌로 작용하



의제 및 법규 재개정

정복, 평상복 새로 통일 제작
‘총원종법연구회’ 통해 재검토

복합문화교화도량 불사

관성사 4월 착공, 밀교 수행 포교

고 있다. 비합리적인 중원종법의 조항들을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선 총리원장은 “제가 스승들도 예전에는 부부가 아니면 안됐는데 이제는 문을 넓혀 독신자들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 자립과 관련해서도 인선 총리원장은 “현재 10~15% 정도인 자체 수익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교도들의 단시금으로는 더 많은 교화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은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된 과산 중원사 스승 집중수련도 계속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선 총리원장은 “중원사는 서원당, 속소동, 공양실, 운동장 등을 갖춘 종합수련센터로 지어진 도량”이라며 “스승들의 법계에 따른 교과과정과 수행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도량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원장 인선정사는 경남 진양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지종 총무부장, 총리원장 직무대행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8일 서울 송파구 도담하우스(원장 허진호)를 방문해 미혼모들을 위로했다. 2015년 개원한 도담하우스는 미혼모들이 머물며 의료와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가정시설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의 이매옥 이사장은 “불교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도담하우스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실

총회의원 3원 교역직 겸직 추진 논란

총원종법특위, 3월 임시총회서 발의... “인사난 때문”

조계종 중앙종회가 총회의원이 총무원 등 3원의 교역직을 겸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종회 총회개정 및 중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격, 이하 총원종법특위)는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3월 임시총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을 개정할 총회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중 징계를 청구할 수 있

는 총무원 호법부장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예외로 뒀다.

총원종법 특위는 이번 총회개정 추진에 대해 3원의 인사난을 이유로 들었다. 특위는 “소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행정·입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권한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북한 핵포기, 대화 나서야” 논평

조계종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2월 18일 논평을 통해 “남과 북은 영원히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할 한 민족이다”며 “조계종은 남북공존과 상생을 지해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평화”라며 “핵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끝으로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과 북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종단 역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구축계 수계산림 단독 봉행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독자적인 구축계 수계산림을 진행한다. 선학원은 2월 1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4월 중 부산 금정사에서 수계산림을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선학원은 지난해 조계종과의 갈등 국면에서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교육과 수계권리 제한 조치에 4월 금정사에서 구축계 수계산림을 열고 비구 15명, 비

구 3명에게 전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100인 대중공사가 ‘화쟁원탁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법인관리법 폐지 선행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 상반기 구성되는 장로원의 장로자 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예비분원을 분원으로 전환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2월 16일, 국방부 원광사서 군종교구 신년계획 밝혀

지난해 말, 공동경비구역(JSA)에 신축법당 불사를 결의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연내에 법당을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 스님)는 2월 16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구장 정우 스님(사진)은 “관문점을 방문했을 때 교회와 성당은 별도의 건물이 있었지만 법당은 미군이 사용하던 막사를 개조해 법당으로 쓰고 있었다. 법회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문점에 지난해에만 16만여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법당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당 불사 계획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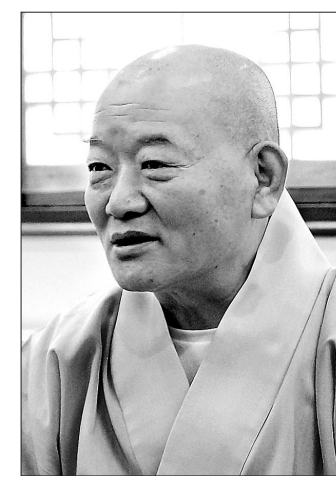
스님에 따르면 현재 JSA법당 불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설계를 마치고, 군승인도 받아 행정조치 등 세부적인 부분만 남은 상황이다. 새로 지어질 법당은 약 25평 규모에 고려시대 건축양식을 반영한 무량수전이다. 이곳에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국군 위령비를

세워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닥에 전돌을 깔아 누구나 법당을 편히 참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과 참배객을 위한 마루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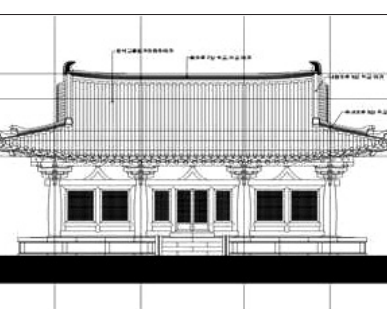
정우 스님은 “법당 부지는 외국인들이 관문점을 방문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전시관 인근이다. 법당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젊어지고 있는 선조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불교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인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구부사주지침회의는 군종교구의 요청을 받아 오는 3월 24일 오전 11시 일산 여에서에서 차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버스를 타고 JSA법당 부지와 관문점을 돌아볼 예정이다.

군종교구는 올해 JSA법당 불사 외에도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구부사-군법당 자매결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



6·25 참전국 위령비 세우 참전용사들 넋 기릴 예정



JSA법당 정면도

획이다. 자매결연 당시 24개 각 교구본사는 군·사단, 교육부대 등 지역 상급부대와 불사 및 법회·위문품 보내기·장병 위문 등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간담회서 정우 스님은 2009년 삭제된 총원 9조 2항(군법사에 한해 혼인 인정)에 따라 예편한 군승을 종단이 품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스님은 중앙종회 등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정우 스님은 1960년대 화동승(和同僧,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통합종단에 소속된 대처승)을 예로 들며 예비역 군법사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존중을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군포교라는 미명 아래 결혼까지 허용하면서 장기복무를 장려했는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단을 떠나야 하는 군법사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용도폐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면서 “통합종단 형성 시기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종단에 오신분들이 있다. 이처럼 종단이 예비역 군법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다시 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원불교문화대학

대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야간 / 수·금요일)
- 동·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긍정심리학 / 신체심리치료 / 삶과 죽음의 철학 / 철학과 심리 / 심리검사 및 평가 / 상담과 철학 / 상담면접기술 / 유식심리학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 I 등
- 명상학과 (주간·야간 / 수·목요일)
- 동·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명상과 치유 / 불교명상학 /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실습 / 불교와 마음치료 / 삶과 죽음의 철학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심리검사 및 평가 / 불교수행과 실습 / 비교명상의 이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현대 명상의 이해와 실제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 1교시 14:00 ~ 15:30 / 제 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 1교시 19:00 ~ 20:30 / 제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2016학년도

대학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야간 / 수·목요일)
- 동·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치료 / 정신병리학 / 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전 / 뇌과학과 심리치료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실습 / 삶과 죽음의 철학 / MBRS·수용전념치료(ACT) /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 집단상담 II / 부부 및 가족상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 1교시 19:00 ~ 20:30 / 제 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화 : (02)707-1072
- 팩스 : (02)3273-1618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로드)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 개강 : 2016년 3월 2일(수)
-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 특전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동반가족(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